

# 천사투자자 모금액 2000만원 돌파

### 전주시 크라우드 펀딩대회 전용관 오픈·12개 조직 참여 모금활동 시민 참여로 착한 경제 이끌어가는 사회적경제조직 성장 발판 마련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현재까지 320명이 2030만5000원 펀딩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전주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돕기 위한 천사투자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전주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발판이 될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를 모집하는 '전주시 사회적경제조직 크라우드 펀딩대회'의 펀딩금액이 2000만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의 합성어로, 시민 누구나 사회적경제조직이 제안한 프로젝트에 공감하면 '오마이컴퍼니' 전용관에서 해당 프

젝트를 클릭한 후 후원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전주시 사회적경제조직 크라우드 펀딩대회에는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과 이웃의 지역사회 환원 등 착한 경제를 만들어 가는 12개 전주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해 천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20명의 시민이 참여해 총 2030만5000원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현재 후원금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사회적기업인 '주식회사 청풍로하스'로, 이 업체는 프로젝트 성공을 통해 펀딩 참여자 뿐만 아니라 전주지역 아동센터 20개소에 에어컨 분해 세척 사회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 뒤는 문화예술을 전공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영재콘서트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능력개발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주기로 한 사회적기업 '예술기획 My Stage'와 보호자의 시간과 장소에 따라 자유롭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온누리공동체 '나누리돌봄교육'이 2위 자리를 두고 선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 △쿠미온풍발달센터의 '내 아이의 발 건강과 숨어있는 키 찾기' △착한사람들의 '공유창작공간 착한공작소' △전주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하나씨에게 건강한 치아를' △롱 북는 마을의 '커피향을 나누며 구도심의 공동체 의식을 찾아가는 프로젝트' △도심

속 화분관리 나·비·채의 '나와 부모가 함께하는 반려식물 나누기' △전주자활센터의 '어머님의 마음으로 만든 수제 누룽지 한입푸드' △건강한이야기의 '건강한 식재료와 비건 재료를 이용한 알리지 아토피 안닝' △전북북한돌봄사회적협동조합의 '엄마의 선물 같은 하루'가 시민들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시는 이번 크라우드펀딩 대회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공익적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참여하거나 육성하는 시민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상품과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들을 위한 일자리가 탄탄해 질 수 있으며, 앞으로 남은 1주일의 기간 동안 더 많은 시민이 공감해 주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가 7일 전주시청에서 맞춤형 일자리행사를 열었다.

## 전주시, 생산직 구인·구직 만남의 날 열어

### 청·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전주시가 맞춤형 일자리행사를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장년층과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의 인재를 연결해 주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돕고 나섰다.

시는 7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청·장년층 구직자들의 취업지원을 통한 생활안정과 기업의 생산력인 증설로 인한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한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2018년도 제5회 생산직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드람 김제EMC 협력업체인 (유)좋은산업, (유)우리산업과 전자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삼인테크,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체인 (유)다수, (주)진영테크 등 총 5개 업체와 청·장년층 구직자 60여명이 참여해 현장면접을 진행했다.

이번 일자리행사에서는 현장 면접을 통해 총 20명 이상이 채용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 전라감영으로 떠나는 문화유산탐험

### 전주시, 전북문화재연구원과 지역문화유산교육 운영 모의발굴·현장견학 등 체험 다채... 수강료는 전액 무료

미래 주역인 전주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주시는 통일시대 때부터 1300년 넘게 관청 자리였던 '호남의 상징'인 전라감영을 소재로 한 지역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재청과 전북도, 전주시가 후원하고 전북문화재연구원이 맡아 진행한다.

'전라감영을 통해 만나본 고고학'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발굴현장에서 체험 학습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해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모의발굴과 현장견학 등의 체험활동을 하게 되며, 유물모양 비누 만들기, 유물 복원 등 다채로운 고고학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전북문화재연구원은 전주시 소재 중학교와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소년의 집, 소외계층대상 공부방 등 1차로 5개 학교를 우선 선정해 지난 4월부터 1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를 원하는 전주시 소재 중학교와 동등 정도의 교육기관(소년의 집, 장애인 학교, 소외계층대상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등)에서는 전북문화재연구원 홈페이지 (www.jbmy.org)에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거나, 전화(063-272-5897)로 문의한 후 신청할 수 있고, 수강료는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전북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낯선 고고학을 우리 고장의 문화재와 현장 체험을 통해 알려 줄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며 "지역문화유산과 유물 발굴의 매력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를 학생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국제슬로시티 총회 열어

### 전주시, 슬로시티어워드 유력 수상후보로 거론 전주시장, 한국대표 슬로시티 전주 홍보 연설

전주시가 국제슬로시티연맹에 가입된 30개국 244개 도시에 전주의 매력 알리기에 나선다.

시는 오는 23일 프랑스 미랑에서 개최되는 '2018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총회'에 참석해 '사람이 우선인 도시,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를 홍보하고, 이번 시장 총회에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장도시인 전주시의 시장이 직접 참여해 국내 15개 시·군 시장·군수와 관계공무원 등 국제슬로시티연맹 30개국 244개 도시의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슬로시티 총회 및 공동 워크숍, 슬로시티 현장탐방 및 정책교류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의 수도이자 국제관광도시인 전주의 위상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국제슬로시티 244개 회원도시에 오

는 10월 개최되는 '제2회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를 집중 홍보해 전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전주시는 올해 국제슬로시티연맹이 수여하는 슬로시티어워드 유력 수상도시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슬로시티어워드는 우수한 슬로시티 정책시례를 발굴한 도시에 주어지는 상이다.

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전주시가 '전주 세계슬로포럼과 슬로어워드'와 시민을 위한 슬로시티 전주학교 '오순도순' 운영 등의 사례로 수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현재 전주시와 전남 신안군과 완도군을 비롯한 13개 시·군이 가입돼있으며 이번 총회에서 경남 김해시와 충남 서천군이 신규 인증을 앞두고 있다.

/송효철 기자

## '일가족 일산화탄소 사망' 관리·감독 소홀 탓

### 38년 된 아파트서 공동배기구 폐쇄로 '일산화탄소 역류' 피해 가정 서비스센터에 의뢰했지만 '관능검사'로 점검 끝

지난 2월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가족 3명 일산화탄소 사망' 사건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인재(人災)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7일 아파트 방 한·방풍을 위해 부주의하게 아파트 공동배기구 폐쇄를 의뢰한 전주 모 아파트 운영위원장 A(60)씨와 의뢰를 받고 공사를 해준 업자 B(57)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 가정의 의뢰를 받아 사고 직접 가스 누출을 점검하면서 이상이 없다고 말한 보일러기사 C(39)씨와 보일러 업체 업자 D(40)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공동배기구 공사를 할 때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 같은 조치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와 D씨는 지난 2월 8일 가스 냄새를 맡은 피해자들의 요청을 받고 가스 누출을 점검하면서 점검 장비로 소지하지 않고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보일러 설치 자적이 없던 C씨는

가스 냄새 서비스 출장 경험이 두 차례밖에 없었음에도 점검 장비도 없는 상태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 2월 8일 오후 전주시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E(78)씨와 E씨 아내(71), 손자(24) 등 일가족 3명이 보일러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다.

사고 당일은 악산에 사는 손자가 뇌경색으로 입원한 E씨 아내의 퇴원을 위해 전주를 찾은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 지어져 3개 동 95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 공동배기구 폐쇄 작업을 실시한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폐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피해 가정은 이 사실을 모르고 보일러를 틀었다가 변을 당했다.

이에 검찰은 관내 노후 아파트들의 경우 같은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전북도에 노후 공동주택 공동배기구 점검을 요청했다.

또, 전국적으로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풍소장 등을 업무참고자료로 보냈다.

/뉴시스

## 탄소융합기술원, 부산 모터쇼 등 참가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18 부산국제모터쇼'와 '2018 한국자동차 제조산업

전'에 참가해 차세대 자동차부품에 사용될 최신 탄소기술과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홍보하고, 자동차의 소재부품 및 완제품, 가공설비, 엔진이

/송효철 기자

어링 기술 등 자동차 분야의 최신 동향 소개되며 350개의 부스가 마련돼 40,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원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중심인 전주의 탄소산업 인프라 및 생산기술과 전

문기술교육과정 등을 소개하는 홍보관을 운영, 전주가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중심임을 알리고 전반기 교육 탄소를 수료자 확보를 위해 전국 탄소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탄소기술 교육과정도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완주군 공고 제2018-816호

##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1.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조사 및 사유서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조사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	체육 시설	화산생활 체육시설	화산면 화일리 485번지 일원	33,298	증)37,486	70,784	완주군고시 제2010-71호 (2010.6.11)	

나.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결정조사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	체육 시설	화산생활 체육시설	화산면 화일리 485번지 일원	33,298	증)37,486	70,784	완주군고시 제2010-71호 (2010.6.11)	

※ 화산 소로 2-7호선 및 소로 3-7호선과 중복 결정다. 군계획시설(도로) 결정조사서

구분	도로 등급	구번	번호	폭원 (m)	가능 연장 (m)	기정	중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거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소로	3	7	6	국지 도로	164	화일리 478-1	화일리 502-1	일반 도로		

※ 체육시설 7과 중복 결정다. 결정(변경)사유서: 화산생활체육시설 확장 및 승마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 열람(의견제출)기간: 신문제게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열람(의견제출)장소: 완주군청 도시개발과, 산림축산과, 화산면사무소
- 관계도서(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포함): 실용생택(열람장소에 비치)
- 의견제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도시개발과(☎063-290-28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8일 완주군 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